



이차전지 시장 대응력 강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다

도, 투자지원금·연구개발·역량강화 등 기업 지원
수요 중심 소재·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23~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서 국제 콘퍼런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분야 핵심 거점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재 공급망 내재화와 신소재 개발, 재자원화가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부터 기술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새만금은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특화단지 내 24개 기업이 총 9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며, LS L&F, LS M&M 등 대기업과 SK온, 포스코퓨처엠의 합작법인 및 자회사가 포진해 있다. 에코앤드립, 이디엘, 퓨처그래프 등 주요 소재 기업과 국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성일하이텍 등이 가동 중이거나 입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구체 생산공장

을 준공한 LS L&F배터리솔루션은 향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7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연구인프라 및 R&D 역량 강화

도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디지털트윈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고도분석센터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배터리 핵심 소재의 특성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첨단 시설이며, 최적화센터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활용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연구 기관이다.

또한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국비200)을 확보했다. 10월 출범한 '전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를 통해 소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맞춤형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북대, 군산대 등 10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며, 전북대는 2026년부터 이차전지 전공 학과를 신설해 연간 30명을 배출한다.

도내 5개 특성화고에서도 12개 관련 학과를 운영하며, 이리공고는 마이스터고 전환을 준비 중이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120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연간 1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지난 2023년 9월 구성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기업의 안정적 입주와 정착을 돕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개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9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 중이다.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도는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5', 9월 '배터리 코리아 2025'에 참여해 새만금의 투자 매력을 홍보했다.

오는 23~24일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5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배터리 혁신'을 주제로 7개국 20명의 연사가 참여해 글로벌 시장 동향과 차세대 기술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일 시그니엘 서울호텔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의 연계행사인 '스마트시티&스포츠 서밋'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가 그레고리 주노드 세계올림픽도시연맹회장(스위스 로잔 시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올림픽 개최 도시 경험 '직접 듣고, 배우고'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참여
국제 스포츠 행사 운영 사례 학습 통한 지역 스포츠 정책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경험을 배우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평창에서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연합체인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주최로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가 개최된다. 총회는 30개국 200여 명의 올림픽 개최 도시 및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서울에서 총회 연계 행사인 '스마트시티&스포츠 서밋'이 열린다.

도는 이번 총회 참여를 통해 올림픽

운영과 관련된 선진 사례와 행정 노하우를 습득하고, 스포츠를 활용한 도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 조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각국 올림픽 개최 도시 등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회 준비와 유산 관리의 실무 경험도 공유하고, 이를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 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사는 '스마트시티&스포츠 서밋' 첫날(20일)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올림픽 개최 도시 시장 등 추진기관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며, 국제 스포츠 행정과 도시 운영 비결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위스 로잔 시장이자 세계올림픽도시연맹 회장인 그레고리 주노드와의 면담에서는 스포츠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참여는 전 세계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다양한 사례 학습을 통해 전북의 스포츠 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올림픽 개최 도시들 간의 경험과 역량 공유, 그리고 대회 유치 희망 도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전 세계 50개 도시와 19개 제휴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7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본격적인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8시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 위험도가 높은 1만 4천ha 산불취약지와 도내 103개 등산로(463km)를 대상으로 입산 통제 및 예

방 캠페인을 벌이고, 산불감시원·진화대 1,5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AI 탐지닝 기반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산불상황실에 구축하여 11월초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읍' | 세계관광청 주관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무주읍이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하는 '2025년 세계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 안지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세계 각국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및 자연 자원, 경제·사회·환경적 지속 가능성, 관광 개발

및 가치의 통합 등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무주군 무주읍은 △향토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의 청정 자연환경, △한풍루,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자원,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자연·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태관광 실천 사례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무주읍은 UN Tourism 공식 로고 사용 및 글로벌 홍보페이지 개설, '세계최우수 관광마을 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국제 교류 확대 등의 혜택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친환경 관광 정책 확산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믿고 구매하는 초특가
장수군 직영 쇼핑몰

장수몰 JANGSU MALL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꾸어진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